

모태범·이상화 불심도 '금메달' 동갑내기 은석초교 출신... 시합 전 기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금메달을 딴 모태범·이상화 선수가 종립학교 동국대 산하 은석초교 출신으로 신심 돈독한 불자인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1989년 동갑내기인 모태범 선수와 이상화 선수는 은석초교 38회 졸업 동기이다.

모태범 선수는 은석초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해, 2007년 국가대표팀에 첫 발탁됐다. 모 선수는 2006·2007년 세계주니어 선수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500m 부문에서 1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해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1000·1500m에서 2관왕에 오르며 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키워왔다.

이상화 선수도 은석초 재학시절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했다. 2004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 선수는 지난해 가을 열린 8차례의 월드컵 경기에서 6번이나 금메달을 목에 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유망주로 인정받아왔다.

두 선수는 뛰어난 스피드스케이팅 실력만큼이나 불심 또한 깊다. 가족 모두가 불자가 봉선사 신도인 모태범 선수를 비롯해, 정토심



출처=이상화 선수 미니홈피·은석초교

(淨土心)이란 법명을 가진 이상화 선수는 매 시합 전 향을 펴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석초교 김한기 교장은 "한국이 동계올림픽 출전 이래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딴 값진 금메달의 주인공이 모두 은석초교 졸업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두 선수가 남은 종목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8일 동계올림픽에서 한국대표팀에 축전을 보냈다. 스님은 축전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500m를 동반 우승한 모태범, 이상화 선수와 안타깝게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던 쇼트트랙의 심사백, 이호석 선수 등 불자 선수들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종단 바른 미래 위해 진력”

태고종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 취임 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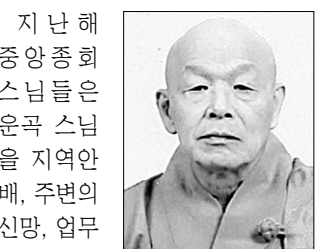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믿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종단 미래를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정신으로 진력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제101회 중앙종회에서 중앙사정원장에 선임된 운곡 스님(홍천 안양사 주지·사진)은 경인년 새해를 맞아 사정원 이 태고종의 위상 회복,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운곡 스님은 중앙사정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능력을 심분 발휘해 종단 위상 회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종현종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스님은 “엄격한 삼검분림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지만 종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종현종법을 토대로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자세에 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사정원은 지방교구사정원의 징계심판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의 심리, 사찰운영 또는 승려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종무기관의 사무 처리에 불복, 행정소원을 청구한 사건의 심리 등을 관장한다.



운곡 스님은 종현종법의 절차나 적용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종교 간 잘못이 있다 해도,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며 “절차나 법규적용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엄밀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곡 스님은 종단의 무너진 위계질서, 엄청난 채무 해결 등의 상황을 “격량이 이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일엽연주와 같은 형국”이라 비유했다.

스님은 “부채수습대책위원회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본질이 호도된 채 방책만 강구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채무 발생 원인과 절차 정당성 책임소재 등이 규명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

며 “빛을 질 때처럼 독단과 편법, 얕은 꾀로 얼렁뚱땅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원 소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걱정도 하고, 한편에서는 트집도 잡고 그렇지만 그렇수록 더 각오를 합니다. 예부터 사정(司正)에는 추상(秋霜)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을 서릿발을 말하는 데, 저는 서릿발이 되 낄 서릿발이 아니라 투명한 서릿발이 되고자 합니다. 공명정대해야 파사현정(破邪顯正)합니다. 종단 미래를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정신으로 진력하겠습니다. 종단 바른 모양 만물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운곡 스님은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소임자들이 직분을 똑바로 수행하는 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혜철 충청지사장

1000 뉴스

올 봉축표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 결정됐다.

이번 봉축표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자비(慈悲)와 상생(相生)으로 모두 함께 정토세상을 이루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공모를 실시해 332건(173명 응모)의 응모작을 심사했다. 이번 표어는 서울시 서대문구 백정아 불자가 응모한 것이다.

조계종 17일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7일 오전 9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에서 경인년 새해 불교종중의 발전을 마련하는데 전 종무원이 일심으로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자승 스님은 덕담에서 “눈이 없는 사람은 평생 눈뜨기를 바라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미 갖춰있기 때문에 평생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이라며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 불교종중을 못 이룰 이유가 없다”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덕담에서 “수처자주(隨處作主)의 마음으로 임하면 소통과 화합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각 종무원들의 적극적인 종무활동을 당부했다.

조계종 사회부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가 2010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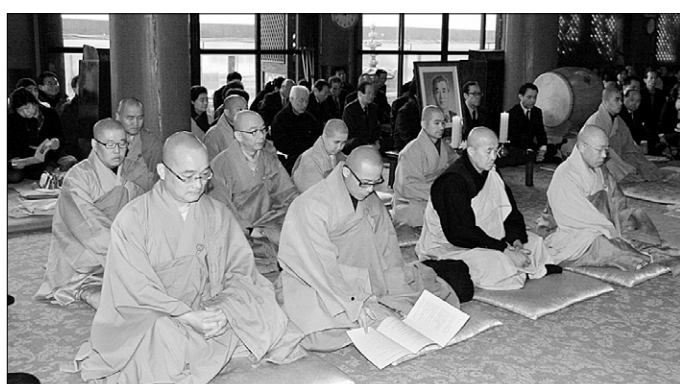
사회현안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은 통일·국제·환경·종교교류·사회통합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각 우수사업에는 총 4500만원의 사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종단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2월 16일~3월 31일 접수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02)2011-1820 bullee@buddhism.or.kr

일산불교병원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성금

동국대일산불교병원(원장 이진호)과 서울 천축사(주지 유방)는 2월 18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에 각 680, 800만원의 아이티 구조기금을 전달하고 국내외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상시구호시스템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대불총 등 보수단체 조계종 방북 규탄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이하 대불총), 상이용사불자회, 해외환전위원회 등 불교계 4개 보수 단체는 2월 18일 조계사와 통일부에서 ‘김정일을 지지하는 진북 승려 규탄대회’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총 등은 성명서를 통해 “1월 30일-2월 1일 조계종 대표단과 조별련 사업의 합의 및 논의의 사항은 무지의 소행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며 국민과 불교도들의 뜻에 반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합의했다면 이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며 “정부는 국가 정책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조별련과의 남북 대화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극락양생하소서...” 故 서석재 前 정각회 회장 49재가 2월 12일 조계사(주지 세민·오른쪽)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자란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 최병국 국회 정각회장, 김경실 예술의전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故 서석재 의원은 제11대 국회의원, 1994년 총무처 장관, 1996년에는 국회 정각회장으로 활동을 통해 전통사찰보존회 개성, 군종정교 파승비율 조정, 불교방송 전국 송출 등 불교관련 법안과 정책 수립에 앞장섰다. 글=이상언 기자·사진제공=조계사

4대강 저지 심포지움 등 대안 제시

종교·시민사회단체·야당 한자리서 “4대강 저지” 뜻 모아

개발논리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 등 문제에 파문혀 여론의 주연으로 물러난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시민사회·야당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 역량을 결집해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끈다.

4대강조이기사업저지및생명의강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법대위)는 2월 1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년 4대강 보전 활동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한 우이영 보존회 김기

준 운영위원은 “지을 스님이 낙동강 순례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보고 간 사 람들은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며 국민 역량 결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집중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초심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길승 녹색병원장은 “세종시 불택홀에 빠져서 4대강 문제가 등한 시 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며 “지금까지 문턱에서 맴도는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른 단체에 비해 불교계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 반대 대응 계획으로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2월 23일 여주 신륵사) △전국사찰 대상 환경법회(3-10월) △불교적 해법을 위한 심포지움(3월 4일) △강 살리기 기도회(4월 10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3월 열리는 심포지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계획들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적 해법을 위한 심포지움은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3월 4일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박선주 기자

불기 2554년 경인년 부처님 출가제일 기념 민족 화합 평화기원 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취임

·일시 : 2010년 3월 23일 (음, 2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충북 옥천 IC 입구 명가 연회장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인년 새봄을 맞아 부처님 이름으로

2천만 불자의 안위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어 세간에서는 국가가 흔들리는 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 이제 불교가 다시 국민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라 고승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거울삼아 호란과 왜란을 물리친 승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사부대중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금까지 오메불망 불국정토 구원을 위해 원력을 다하신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국민극복과 더불어 제2의 불교중흥을 위한 대법회 법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교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승왕청 CBC108.TV연합불교방송 일봉신문사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명단 ◆

- 총 재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 부 총 재 보 리 현 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 청 원 박수웅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 법 각 지 오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 안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 회 장 의 루 서주범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 부 회 장 법 진 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 청 암 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 만 주 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 심 향 법 장 (한국불교구산선문화 회장)
- 연 화 덕 산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 자문위원 대 천 문연우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 월 담 성 인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 향 덕 박승익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 회 원 법 안 이기욱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대행)
- 청 산 성 운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 일 용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 법 정 구철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은 곡 조병남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 원 각 한경수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 해 광 문동춘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 대 성 김영기 (대한불교대성종 총무원장)
- 해 광 전종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 원 공 유명권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 안 심 박영주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 해 림 백선권 (해동불교임계조계종 총무원장)
- 해 봉 김일석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 덕 정 이형덕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 청 담 윤문봉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 법 정 덕 암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 지 법 반동환 (대한불교지법태고종 총무원장)
- 해 덕 월 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표)
- 관 행 정숙자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연합불교방송/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